

1. 大學

物格而後知至 知至而後意誠
意誠而後心正 心正而後身修
身修而後家齊 家齊而後國治
國治而後天下平

사물의 도리를 모두 궁구한 후에야 앎이 사물의 도리에 지극해지고,
앎이 지극해진 후에야 뜻이 진실해지며, 뜻이 진실해진 후에야 마음이 바르게
된다.

나아가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야 몸이 닦아지고, 몸이 닦아진 후에야 집안이
가지런해지며, 집안이 가지런해진 후에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야 천하가 평안해진다.

2. 中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하늘이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한 것을 성이라고 하고,
이 본성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라고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도를 열심히 실천하게 하는 것을 교라고 한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彥 萬物育焉

희로애락이 아직 일어나지 상태를 中이라고 하며,
일어났지만 모두 절도에 맞으면 그것을 和라고 한다.
中이 천하의 근본이며, 和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통용되는 인간의
도리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과 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면, 천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리를 잡고 만물이 저절로 자라난다.

中庸其至矣乎 民鮮能久矣
道之不行也 我知之矣 知者過之 愚者不及也
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

중용이야말로 지극함일지언정 사람들이 오래 지키기가 드물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誠은 하늘의 도리이며, 誠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다.

3. 論語

禮之用和爲貴
人不知不愠
不患人知不己知 患不知人也

예의 쓰임에는 무엇보다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노여워하지 않으니,
이 또한 군자답지 아니한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라.

巧言令色 鮮矣仁
剛毅木訥 近仁

반반한 외모로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굳세고 의연하며 질박하고 어눌함은 仁에 가깝다.

君子去仁 惡乎成名 君子無終食之間違仁 造次必於是 顛沛必於是
仁則吾不知也

군자가 인을 버리고 어찌 명예로운 이름을 이룰 수 있겠는가.
군자는 밥 한 그릇을 먹는 시간에도 인을 어기는 법이 없으며, 급할 때도 반드시 인과 더불어 하고, 옹알하고 넘어지는 동안에도 반드시 인과 더불어 해야 한다.

我欲仁 斯仁至矣

能行五者於天下 爲仁矣

恭寬信敏惠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足以使人

내가 인을 하고자 하면, 인에 이르게 된다.

천하에 다섯 가지를 행할 수 있으면 인이 된다. (그 다섯 가지란)

공손함, 관대함, 믿음직스러움, 민첩함, 은혜로움이다. 공손하면 모욕 당하지 않고, 너그러우면 다른 사람의 지지를 받으며,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일을 맡기고, 민첩하면 공로가 이루게 되고, 은혜로우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

居處恭 執事敬 與人忠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평상시에 일을 할 때는 공손하고, 일을 처리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사람을 대할 때는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

부자(공자)의 도는 충과 서(진심과 배려)일 뿐이다.

자공이 ‘평생토록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恕이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吾日三省吾身

克己復禮爲仁.....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나는 하루에 세 번 스스로 반성한다.

자기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 말며,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하지 말아라.

부모가 살아계실 땐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사를 지내며, 돌아가신 뒤에는 예로 제사를 지낸다.

不知禮 無以立也
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
君子矜而不爭 群而不黨
君子泰而不驕 小人驕而不泰
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
君子不以言舉人 不以人廢言

예를 모르면 사회에 나설 수 없다.

군자는 자기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군자는 금지를 가지지만 다투지는 않고, 여럿이 한데 어울리지만 편을 가르지는 않는다.

군자는 태연하면서도 교만하지 않으며, 소인은 교만하면서도 태연하지 못하다.

군자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여 화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흔들리지 않으며,

소인은 이익을 얻기 위해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흔들리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율하여 화합을 이루지는 못한다.

군자는 말로써 사람을 천거하지 않고, 사람됨됨이로써 그 사람의 말을 버리지 않는다.

述而不作 信而好古
溫故而知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스스로 창작하려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옛것을 좋아한다.

옛것을 익히고 복습하며, 새로운 것을 안다.

배우기만 하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사색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독단이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다.

4. 孟子

迂遠而 闕於事情

현실과 거리가 멀고 사정에 어둡다.

不忍人之政

惻隱之心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차마 모른 척하고 지나칠 수 없는 정치, 즉 불행한 백성을 저버리지 않는 어진 정치=왕도정치를 실천하여 군주 국가의 우두머리인 왕자가 될 수 있다. 누구라도 그렇다. 왕자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지,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民之歸仁也 猶水之就下

暴其民甚 則身弑國亡

백성이 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이 아래로 향하는 것과 같다.

백성에게 포악함이 심하여, 자신은 시해 당하고 나라는 망한다.

自反而縮 雖千萬人 吾往矣

돌아쳐보아 곧고 의롭다면 천만 사람이 앞을 막더라도 겁내지 않고 담대히 나아간다.

5. 荀子

人之性惡 其善者偽也

인간의 본성은 악하니, 본성이 선해지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다.

今人之性惡 必將待師法然後正 得禮義然後治

대체로 사람의 본성은 악하니, 장차 스승과 법제를 기다린 뒤에야 정직해지고 예의를 얻은 뒤에야 다스려질 수 있다.

學不可以已 青取之於藍 而青於藍

배움에 그쳐서는 안 된다. 푸른색 물감은 쪽에서 채취하였지만, 그것은 쪽보다 푸르다.

6. 老子道德經

驕氣與多欲 態色與淫志
吾所以告子 若是而已

교만한 마음과 지나친 욕심, 뻣뻣한 태도와 방탕한 뜻을 버려야 한다.
내가 그대에게 해 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다.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
無名 天地之始 有名 萬物之母
孔德之容 唯道是從
道之爲物 唯恍唯惚
惚兮恍兮 其中有象 恍兮惚兮 其中有物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참된 도가 아니다. 이름을 붙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없는 것에서 하늘과 땅이 비롯되며, 이름 있는 것에서 만물이 태어난다.
위대한 덕의 모습은 오로지 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라는 것은 만물을 위한 것으로, 오로지 흐릿하고 어슴푸레할 뿐이다.

흐릿하고 어슴푸레하나 그 안에 형상이 있으며, 흐릿하고 어슴푸레하나 그 안에 만물이 있다.

爲無爲 事無事 味無味
圖難於其易 爲大於其細
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
是以聖人 終不爲大 故能成其大
太上下知有之

행하는 바 없이 행하고, 일하는 바 없이 일하며, 맛보는 바 없이 맛본다.
쉬운데서 어려운 일을 도모하고, 작은 데서 큰 일을 행한다.
세상의 어려운 일은 언제나 쉬운 일에서 시작되고, 세상의 큰 일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그렇기에 성인은 결코 큰 일을 행하려 하지 않으니, 그 때문에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

絕學無憂 唯之與阿 相去幾何
爲學日益 爲道日損
孫之又損 以至於無爲 無爲而無不爲
知者不言 言者不知

배움을 그만두면 근심이 없어진다. 공손하게 대답하는 유와 격식 없이 대답하는 아는 얼마나 다르겠는가?
배움을 추구하는 것은 날마다 보태는 것이요. 도를 닦는 것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무위에 이르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大道廢 有仁義
絕仁棄義 民復孝慈
大道廢 焉有仁義
絕僞棄慮 民復季子

큰 도가 없어지니 바로 인의가 나타났다.
어쭙을 끊고 의로움을 버려야, 백성이 다시 효성스럽고 자애로워질 것이다.
큰 도가 무너지면 어찌 인의가 있겠는가?
거짓을 끊고 생각과 잔피를 버리면, 백성들은 순수한 어린아이로 되돌아간다.

7. 莊子

此龜者寧其死爲留骨而貴乎 寧其生而曳尾於塗中乎

나는 박제되어 사당에 모셔지기 위해 죽는 신성한 거북보다, 진흙 속에 자취를

남기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거북이 되고 싶다.

毛嬙麗姬 人之所美也 魚見之深入 鳥見之高飛 麋鹿見之決驟
四者孰知天下之正色哉

사람들은 모장과 여희를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물속 깊이 달아나고, 새는 그들을 보면 하늘 높이 날아가며, 사슴은 그들을 보면 힘껏 달아난다. 사람, 물고기, 새, 사슴 가운데 누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겠는가?

昔者 莊周夢爲胡蝶 栩栩然胡蝶也 自喻適志與 不知周也 俄然覺 則蘧蘧然周也
不知 周之夢爲胡蝶與 胡蝶之夢爲周與 周與胡蝶則必有分矣 此之爲物化

옛날에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팔랑팔랑 즐겁게 날갯짓을 하며, 자신이 장주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문득 눈을 뜨니 장주였다. 그러나 알 수 없다.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일까, 아니면 나비가 지금 꿈에서 장주가 된 것일까. 나비와 장주 사이에는 반드시 분명한 구별이 있다. 이를 일러 ‘물건의 변화’라고 한다.

分無常 終始無故
不將不迎 應而不藏

각자에게 주어진 몫은 한결같지 않고, 끝과 시작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으며, 사물에 따라 응할 뿐 간직하지 않는다.

8. 世說新語

- 세설신어는 다양한 인간상을 그린 일화집이다.
- 세속적인 가치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사람들이 매력이다. 쓰레기 같은 인간도, 욕도 잔뜩 있다.
- 한 화, 한 화가 간결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찾는 느낌으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9. 菜根譚

完名美節 不宜獨任 分些與人 可以遠害全身
辱行汚名 不宜全推 引些歸己 可以韜光養德

완전한 명성과 아름다운 절개는 혼자서 독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남에게도 나눠줘야만 해를 당하지 않고 몸을 보존할 수 있다.
욕된 행실과 더러운 이름을 남에게만 돌리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자기에게 돌려야만 자신의 빛을 감추고 덕을 쌓을 수 있다.

交友 須帶三分俠氣
爵位不宜太盛

친구를 사귄 때는 모름지기 3할의 의협심은 지녀야 한다.
벼슬자리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마땅치 않다.

10. 呻吟語

眞機眞味 要涵畜 休點破 其妙無窮 不可言喻 所以聖人無言
忍激二字是禍福關

가만히 참을 것인지, 일시적인 감정에 이끌려 터뜨릴 것인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행복과 불행의 경계가 된다.

德性以收斂沉著爲第一
深沈厚重 是第一等資質
靜之一字 十二時離不了 一刻繆離便亂了
造化之精 性天之妙 唯靜觀者知之 唯靜養者契之

최고의 덕성은 침착함과 차분함이다.
침착함과 냉정함이 인간으로서의 첫 번째 자질이다.
정이라는 한 글자는 하루 종일 떼어 놓아서 안 된다. 잠시라도 떼어 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문란해지고 만다.

정묘한 조화는 체관한 사람만이 알 수 있다.(우주의 조화와 본성, 천도의 정묘함은 마음이 평온하며 체관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

善者不必福 惡者不必禍 君子稔知之也 寧禍而不肯爲惡 忠直者窮 諛佞者通 君子稔知之也 寧窮而不肯爲佞 非但知理有當然 亦其心有所不容已耳

진실한 마음을 지닌 자는 궁지에 몰리곤 하며, 아침하기를 잘하는 자는 빠져나가기 잘한다. 군자는 그를 잘 알고 있기에, 설령 궁지에 몰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아침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연한 도리임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의 마음에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11. 周易

亢龍有悔
履霜堅冰至

용이 하늘에 오르면 뉘우침이 있으리라.
서리를 밟을 때가 되면 머지않아 단단한 얼음에 이른다.

12. 時經

對曰 未也 嘗獨立 鯉鰓而過庭 曰 學詩乎 對曰 未也 不學詩 無以言 鯉退而學詩
他日 又獨立 鯉趨而過庭 曰 學禮乎 對曰 未也 不學禮 無以立 鯉退而學禮
小子 何莫學夫詩

예를 배웠느냐고 묻자 아직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배우지 않으면 설 수 없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없고, 예를 배우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공자는 제자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시경을 공부하지 않느냐라며 시경을 배우라고 권한다.

桃之夭夭 灼灼其華 之子于歸 宜其室家
桃之夭夭 有蕢其實 之子于歸 宜其家室
桃之夭夭 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불처럼 붉은 꽃이로다.
이 여인 시집가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리라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무성히 달린 열매로다.
그 여인 시집가서 화목한 집안을 이루리라.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이파리가 우거졌도다.
그 여인 시집가서 화목한 식구를 이루리라.

鷄既鳴矣 朝既盈矣 匪鷄則鳴 蒼蠅之聲
東方明矣 朝既昌矣 匪東方則明 月出之光
蟲飛薨薨 甘與子同夢 會且歸矣 無庶予子憎

닭이 이미 울어 조정에 이미 신하들이 가득하다 하였더니,
닭이 운 것이 아니라 파리떼가 나는 소리였네.
동쪽이 밝은지라 조정에 이미 신하들이 많다 하였더니, 동쪽이 밝은 것이 아니라 달이 떠서 빛남이로다.
벌레가 날아 웅웅거리거든 그대와 함께 단꿈 꾸고 싶지만, 모였다가 헛걸음치고 돌아가면 돌아가면 행여 나 때문에 당신이 미움받지 않을까.

士之耽兮 猶可說也 女之耽兮 不可說也

사내가 놀아남에 빠지면 오히려 벗어날 수 있지만,
여인이 놀아남에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느니라.

13. 禮記

人生十年曰幼 學, 二十曰弱 冠,
三十曰壯 有室, 四十曰強 而仕

사람이 태어나 10세가 되면 유라하면, 이때부터 글을 배운다.
20세는 약이라 하며, 이때 성인이 되어 관을 쓴다.
30세는 장이라 하며, 이때 아내를 맞이하고 집을 가지며 자식을 둔다.
40세는 강이라 하며, 이때 벼슬길에 오른다.

小子識之 苛政猛於虎也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니라

14. 春秋繁露

동아시아를 유교 문화권으로 만든 동중서가 지은 책
: 그는 나쁜 정치를 하면 하늘이 재해를 일으켜 경고한다는 천인상관설(재이사상)을 설파한 전한 시대의 인물이다. 3년 동안 정원에도 나가지 않고 학문에 몰두한 그는 한 무제의 마음을 사로잡아 동아시아의 문화를 크게 바꾼다.

15. 論衡

말의 경중을 헤아려, 진위의 기준을 세운 책
: 백과사전처럼 온갖 사상.속설.기사를 다루며, 비판정신을 가지고 하나하나 파고든다. 고대의 '논파왕'왕충의 날카로운 비판을 즐겨보자

告安韓公莽 爲皇帝

왕망이 재위를 찬탈할 때 우물에서 붉은 글씨로 '안한공 왕망이 황제가 될 것임을 고하노라'

16. 列女傳

남존여비가 뿌리 깊은 중국에서 뛰어나게 훌륭한 여성들의 열전
: ‘맹모삼천’, ‘맹모단기’ 외에도 세속에 사로잡힌 남편에게 깨우침을 주는 현명한 아내, 말솜씨 하나로 곤경을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여성, 임금을 현혹하여 나라를 기울어지게 만드는 악녀 등 다양한 여성들의 일화를 수록하고 있다.

孟母三遷之教

孟母斷機之教

先從隗始

17. 山海經

세상에 드문 진기한 짐승이나 기괴한 짐승이 등장하는 책
: 종횡으로 뻗은 산맥, 중국 세계의 바깥으로 펼쳐진 이경을 무대로, 요괴, 악귀, 신수, 귀신, 괴신을 소개하고 있다. 염제, 전욱, 치우, 서왕모 등 매력적인 중국 신화도 등장한다.

18. 顏氏家訓

세상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겪은 사람의 설교집
: 공자의 뛰어난 제자로 유명한 안희의 후손이자 명문 귀족 출신 안지추가 지었다. 왕조가 차례로 흥하고 망하는 남북조 시대, 전란에 휘말려 남에서 북으로 유랑하면서도 학문에 힘쓰며, 양, 북제, 북주, 수의 네 왕조를 섬겼다.

父子之嚴 不可以狎

부모 사이는 엄숙해야 하니 지나치게 격의 없이 지내서는 안 된다.

回也聞一以知十

賢哉回也

回也其庶乎
天喪予 天喪予

회는 하나를 듣고도 열을 안다
회는 훌륭하도다
회는 거의 도에 가까웠다
아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19. 近思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보석 같은 격언과 경구가 담긴 책
: 주자학 입문서. 북송 4대 학자인 주돈이, 장재, 정이, 정호의 작품에서 요긴한 부분만 임의로 골라 편집한 선집, 주희가 편찬하였으며, 불평따위를 말할 여지가 없다.

切問而近思
述而不作
서술해서 전할뿐 스스로 짓지 않는다

1. 傳習錄
2. 孫子兵法
3. 吳子兵法
4. 墨子
5. 韓非子
6. 晏子春秋
7. 戰國策
8. 呂氏春秋
9. 淮南子

10. 貞觀政要
11. 宋名臣言行錄
12. 書座
13. 春秋左氏傳
14. 國語
15. 史記
16. 漢書
17. 後漢書
18. 三國志
19. 資治通鑑
20. 蒙求
21. 十八史略
22. 文選
23. 唐詩選
24. 搜神記
25. 剪燈新話
26. 聊齋志異
27. 棠陰比事
28. 三國志演義
29. 紅樓夢
30. 無門關
31. 狂人日記